

#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

## A Theoretical Study on Relocation of the Aged

성신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 徐 勝 姬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an's University*

*Lecturer : Seung Hee, Seo*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李 慶 姬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yung Hee, Khee*

본 연구는 노인의 주거이동행동이 가족생활 주기의 다른 단계의 가구들과는 다른 행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노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소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노인들의 주거이동 유형과 주거이동을 결정하고 목적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관하여 살펴 보고, 노인이 이동 후 받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들과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중재변인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들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노인의 주거이동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가구의 주거이동은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는 자신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연스러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거이동은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도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에서는 Rossi(1955)의 선구적인 주거이동 연구를 시초로(곽인숙 1989, p.129) "누가 이동을 하는가"에 관심을 두었으며, 어떠한 가구가 이동을 하고, 어떠한 동기에 의하여 이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주요관심을 보였다. 그 후 행동과학적인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왜 주거이동을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주거만족을 측정하여 이를 매개로 하여 이동에 도달하는 인과적인 모형들이 검증되

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주거이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초기의 연구로 윤중주(1979), 황명찬과 박현주(1983), 김미희(1983), 이경희(1984)등에 의하여 주거이동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80년대 후반에는 김정호(1987)의 주거소비측면에서의 이동예측과 강제이동을 중심으로 이들의 주거만족과 태도를 검토한 조은정(1986)의 연구, 그리고 주거이동의 유형과 이동의 영향을 함께 고찰한 곽인숙(1989)의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족생활주기의 제 단계에 따라 주거이동행동의 동기나 이동의 빈도,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주거이동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으며, 가족생활주기의 제 단계의 가구들이 하나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노인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3세대 주택, 노인주거단지 계획, 유료 또는 무료 양로시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물리적인 환경이 적합한가에 관한 것도 중요한 논의점이 되지만, 한편 노인들이 변화하는 내적, 외적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며,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 주거이동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동 후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노인들은 과거와는 달리 평생을 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내적, 외적 변화와 더불어 주거이동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들에게 주거이동을 전후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해결책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의 주거이동행동을 이해 하기 위하여 첫째, 노인들이 주거이동을 결정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노인들이 주거이동 후에 경험하게 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셋째, 노인들이 주거이동 후 경험하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주거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헌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주거이동이 노인들의 생활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노인의 주거이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주거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하여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주거이동 전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장기적인 주거생활 계획에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노인 주택 정책과 노인 주택 단지

개발을 위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노인의 주거이동 유형과 의사결정 과정

### 1. 주거이동의 유형

노인의 주거이동은 노화과정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젊은 사람들의 이동유형과는 다른 유형을 나타낸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직업으로 부터의 은퇴, 배우자 상실,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주거이동은 이러한 현상들과 맞물려서 발생된다.

Wiseman(1980)은 이동동기를 근거로 노인들의 주거이동을 편의이동(Amenity Moves), 환경적인 압력(Environmental Push), 조력이동(Assistance Moves)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첫째, 편의이동은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 개인이 스스로 이동을 선택한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따뜻한 지방으로의 이주(sun-belt migration)가 편의이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동 역시 편의이동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환경적인 압력에 의한 이동은 노인들 뿐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저렴한 주택가격, 높은 질, 훌륭한 이웃환경을 원하므로 이러한 동기에 의해 이동하는 경우이다. 셋째, 조력이동은 개인적인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 상실로 인한 이동을 말한다. 건강상태는 조력이동의 가장 분명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시설주거로 이동하려는 노인들의 일반적인 이유는 주거유지와 집보기 등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는 어떤 종류의 기능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Newman(1976)은 장기간의 질병을 경험했던 노인들의 표본을 통해 그들의 거의 반이 주거이동을 경험했으며 대부분의 주거이동이 요양원(nursing home)으로 혹은 친척 집으로의 이동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같은 증거는 노인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더욱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건강과 주거이동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좋은 건강상태는 편식이동을 발생시키며, 반면 나쁜 건강상태는 조력이동을 하도록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수입의 축소, 한쪽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결혼상태의 변화 역시 조력이동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Binstock과 Shanas, 1985 : 452-455).

반면 Lawton(1985)은 Wiseman(1980)이 제시한 주거이동 유형 중 환경적인 압력은 노인들의 주거이동 희망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나, 주거이동을 하게하는 원인은 아니라고 논의하였다(Binstock과 그의 동료, 1985 : 455).

그 후 Litwak과 Longino(1987)는 Wiseman(1980)이 제시한 유형 중 환경적인 압력에 의한 이동을 빼고 조력이동을 두가지 유형으로 더욱 세분하고 은퇴로 인한 이동을 포함한 3가지 주거이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노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첫번째 이동유형은 은퇴에 따른 것으로 이동자들은 주로 평균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건강한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형은 Wiseman(1980)이 제시한 편식이동과 같은 것으로 은퇴한 사람들, 즉 단지 극소수만이 여기에 속하며 주로 은퇴 초기에 이동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유형은 노인들이 매일의 집안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만성적인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 발생된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집안일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두번째 유형의 이동은 한쪽 배우자가 없고 신체적인 장애가 생길 때 이루어진다. 이때 만약 노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먼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들의 생활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얻기위해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첫번째 유형인 은퇴 후의 편식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연령이 더 높을 것이다. 친척의 보살핌에서 시설의 보살핌을 위해 이주하는 세번째 유형의 동기는 친척 자원의 한계가 있을 경우에 일어난다. 노인들이 아주 심한 만성적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시설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며 위의 두가지 유형보다 더욱 강력한 이동의 동기를 가진다.

또한 Spear와 Meyer(1988)도 미국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이동의 유형과 결정요소들을 찾으려는 연구를 통해 노년기의 생활변화에 따른 이동의 이유가 편익, 친척과의 동거, 은퇴, 배우자의 상실 때문이었으며, 각 유형에 속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연령, 가구구성, 그밖의 다른 특성들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인들의 이동의 목적지로 편익과 은퇴를 위한 이동은 주로 남부와 서부지역(따뜻한 휴양지)이며, 친척과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이동은 모든지역에서 발생되었고, 모든 이동은 도시로의 이동보다는 지방으로의 이동이 더욱 일반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5년과 90년 사이에 노인들의 주거 이동지역을 살펴보면 60세이상의 노인들 중 단지 8.6%만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동하였으며, 87.2%가 지방에서 도시, 혹은, 도시간의 이동이었다(이동실태, 1993). 이와같이 미국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거 이동 경향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두나라간의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주거이동은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발생하기도 하며, 직업으로 부터의 은퇴, 건강상태의 악화, 배우자 상실 등의 이유로 발생된다. 또한 이들의 주거이동을 유형별로 크게 분류해 보면 편식이동과 조력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력이동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의 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제로 노인들의 주거이동이 이들 중 어느 한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며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주거이동에 관한 의사결정

노인의 주거이동은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주거이동의 동기들에 의해 노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이동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노인들의 주거이동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거이동의 과정에 대하여 Wiseman(1980)의 제시한 모형과 Haas와 그의 동료(1993)의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주거이동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론적 연구는 Wiseman(1980)이 제시한 주거이동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2단계 모형(그림 1)이다. Wiseman(1980)은 이동에 대한 결정과 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서로 다른 과정으로 보았다. 이 모형에 따르면 이동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들은 개인적,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이동에 대한 결정과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동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내생요인과 외생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개인적 자원, 일반적인 주거경험, 사회참여, 지역사회의 참여정도가 이에 속하며, 후자의 경우 주택시장조건, 생활비용, 친척 및 친구들의 이동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목적지의 선택은 과거에 갔었던 휴가여행 혹은 이전의 주거경험,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과 일차적인 관계가 있다. 특히 이동의 결정은 항상 목적지의 선택보다 우선적이며,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Wiseman(1980)에 의해 제시된 모형은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는데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다.

Cuba(1991)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Wiseman

(1980)이 제시한 2단계 모형을 비판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대부분의 노인 이동자들이 단계적으로 이동을 결정하지 않으며, 둘째, 비록 어떤 노인 이동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실제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을 지라도 목적지의 선택은 주로 이동에 대한 결정의 한 과정이며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셋째, Cuba(1991)는 그의 연구에서 특정한 이동자의 목적지는 친척이나 친구 이동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가 주는 편의 때문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만약 은퇴이동이 실제로 2단계의 과정을 가진다면, 그것은 목적지가 먼저 결정되고, 그 후에 이동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Wiseman(1980)이 제시한 2단계 모형이 비판을 받음으로 해서 Haas와 그의 동료(1993)는 Wiseman(1980)이 분류한 주거이동 유형 중 편의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 과정의 모형(그림 2)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편의 은퇴 이동을 단순한 사건이나, 혹은 Wiseman(1980)이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로 보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 모형의 기초를 이루는 요인으로 축출 요인과 유인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기후, 오락적인 즐거움, 시골지역의 장점들, 도시지역에서 지방으로의 이동, 생활비용, 세금과 복지정책, 건강과 사회 서비스, 가족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동기 등이며, 이 밖에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가 있다. 이 모형에서는 아랫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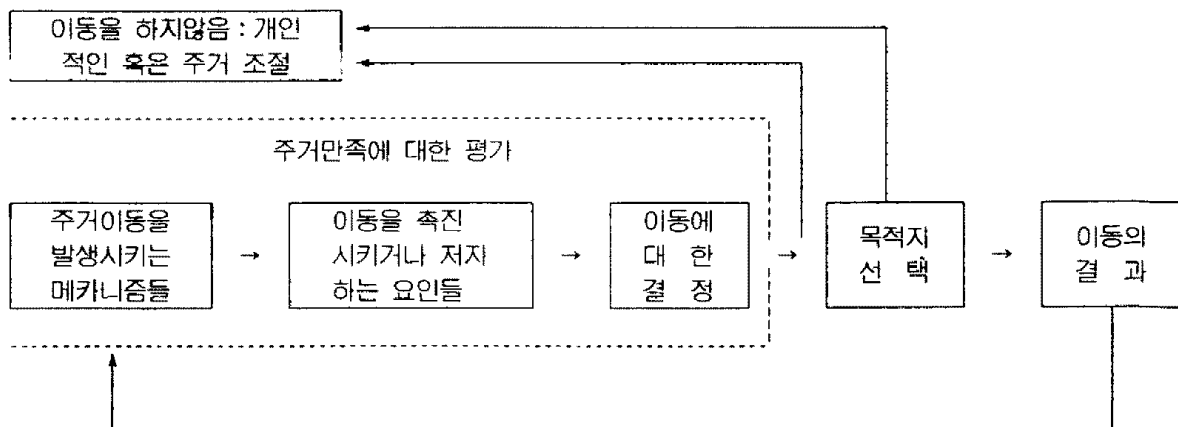


그림 1. 노인의 주거이동 과정에 대한 개념적 모형(2단계 모형)(Binstock과 Shanas, 1985 :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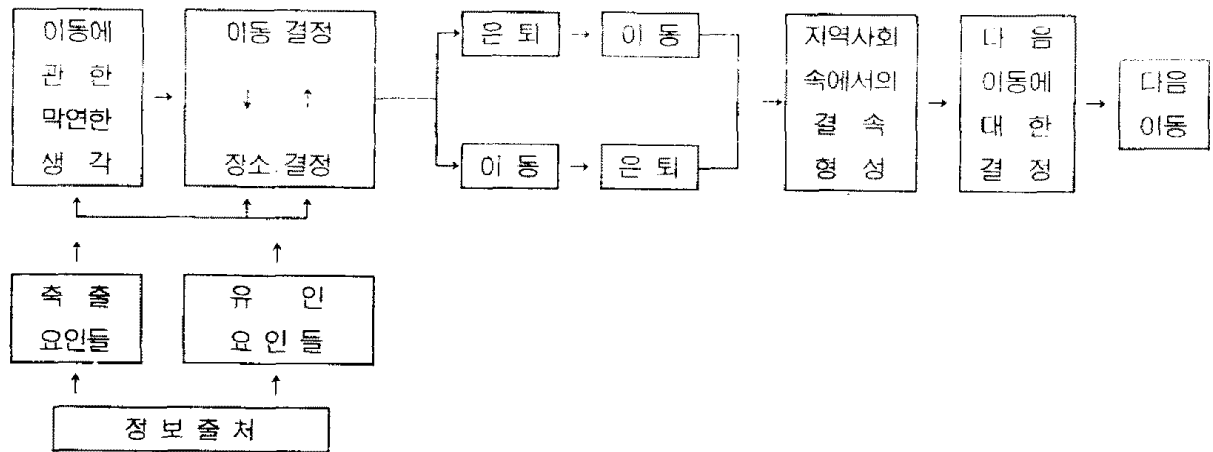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의 은퇴 이동의 과정(Haas와 Serow, 1993 : 214).

분에 위치한 축출요인과 유인요인 뿐 아니라 생활주기의 변화, 환경적인 부조화,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강요된 이동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Wiseman(1980)이 제시한 모형 중 이동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과 유사하다. 이동에 관한 막연한 생각과 실제로 이동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축출요인과 유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모든 이동자들이 대안적인 장소들 중에서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사람은 마음속에 특정한 장소를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정한 목적지로의 이동은 축출요인에 대한 반응이며 정보에 대한 욕구는 장소를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인요인을 발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정보의 출처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장소를 발견하게하고 유인요인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축출요인들을 발견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유인요인과 축출요인 그리고 정보의 출처는 이동에 관한 막연한 생각과 이동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또한 이 모형은 이동에 관한 막연한 생각과 이동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다. 그런 분리는 은퇴이동에 대한 생각과 실제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노인들은 은퇴가 가까울수록 이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목적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이동의 결정과 목적지의 선택이 쌍을 이룬 이유는 이 두가지

결정과정의 중복되는 결정으로 이동에 대한 완전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목적지들이 고려되며, 또한 이 두 과정 중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이동이 이루어지고, 은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에 정착한 후, 그들은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결속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된다. 편익이동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축출요인과 유인요인이 계속 발생될 것이며, 새로운 의사 결정과 장소선택의 과정이 뒤따를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Wiseman(1980)의 주거이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모형은 이동에 대한 결정과 목적지 선택의 두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두 과정을 동시적인 것으로, 또는 중복되거나 어떠한 과정이든 우선적으로 올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노인들의 주거이동 과정을 설명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Haas와 그의 동료(1993)의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의 주거이동 의사결정의 모형은 특정한 대상, 즉 은퇴를 경험하는 노인들의 주거이동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지침이 될 수 있다.

### Ⅲ. 주거이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거이동이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 또한 다양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인이 주거이동 후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들, 즉,

사망율의 증가, 의기소침, 건강악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동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Marlow(1972)는 주거이동 후에 노인들의 사망율을 조사해 본 결과, 주거이동 후 첫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15%~35%까지의 사망율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Watson, 1980: 63). 반면 Watson(1980)은 강제로 이주된 흑인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이동 후의 사망율을 조사해 본 결과, 이동 후 두드러진 사망율의 증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동 후 노인들의 사망율 증가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서 Pastalan과 Boureston(1975)은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의 이동을 급진적인 이동(radical moves)과 온건한 이동(moderate moves)의 두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 급진적인 이동이란 물리적인 환경, 시설의 직원들, 프로그램,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 모두를 변화시킨 경우이며, 온건한 이동이란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환경만을 변화시킨 경우이다. 연구결과, 급진적인 이동은 온건한 이동보다 더 높은 사망율을 나타냈으며, 급진적인 이동의 생존자들은 온건한 이동의 생존자들 보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Regnier와 Pynoos, 1987: 422). 따라서 주거이동 후 나타나는 노인의 사망율은 실제로 이동하는 노인의 특성과 이동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이동 후 노인들의 사망율 변화와 더불어 많은 연구들이 노인들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Ferraro(1982)는 주거이동이 노인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 결과, 그들의 이동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개인의 건강과 매일의 활동에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면서 노인을 위한 시설주거로 이동하는 노인들이 이동 후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 환경에 대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Bailey(1987)는 확대된 보호시설(extended care facility)로 이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의 쇠퇴로 보호시설로 이주하게 된 것이지 주거이동이 건강쇠퇴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하였으며, Boureston과 Pastalan(1981)도 역시 자발적인 조건아래서 이루어진 주거이동은 강제적인 조건 아래서 이루어진 이동과는 달리 건강상태의 쇠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밖에 Brand와 Smith(1974)는 주거이동이 노인의 사회관계망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거이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들인 반면, Wells와 MacDonald(1981)는 주거이동 후 노인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비록 급격한 환경변화가 행동적, 심리적, 신체적 쇠퇴의 원인이 될지라도 자극적인 새로운 환경은 오히려 노인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이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노인들의 주거이동 자체보다는 주거이동이 자발적인 것인지, 그리고 주거이동의 형태가 어떠한지, 주거에서 주거, 혹은 주거에서 시설, 혹은 시설에서 시설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이동에 따른 영향은 달라지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정적인 결과는 적고, 급격한 환경변화의 경우, 예를 들어 주거에서 시설로의 이동이 다른 두 경우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거이동이 노인 개인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어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노인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 즉, 주거이동이 자발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들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결혼상태 등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그들의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주거이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제변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이동 후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은 노인들이 각자 갖고 있는 상황적, 인성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인들에게 주거이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며, 신체적, 심리적인 댓가를 치르게 한다. 특히 주거이동은 신체적인 기능이나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한 노인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주거이동 후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완화시키는 변인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노인들의 주거이동에 따른 영향과 관련이 깊은 요인은 노인의 조절능력과 예상능력이다. 이 개념은 Schulz와 Brenner(1977)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그들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노인들이 주거이동 후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조절능력(Controllability)과 예상능력(Predictability)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거이동의 경우 조절능력은 자발적인 이동과 비자발적인 이동의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지며, 예상능력은 주거이동자가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 변화의 양 및 이동 전에 개인이 가지는 준비의 양과 관계가 있다. Schulz와 그의 동료(1977)는 이와같은 고찰결과들을 바탕으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클수록, 즉 자발적인 주거이동인 경우가 비자발적인 주거이동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덜 나타낸다. 둘째, 새로운 환경을 더 잘 예상할 수 있을수록, 즉 새로운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준비할수록 주거이동 후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가설은 개인의 인성, 즉,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 또는 유사한 환경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따라 이동 후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Schulz와 그의 동료(1977)에 의해 설정된 이 3가지 가설은 이후의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고 있으며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계속 입증되어 왔다.

노인들의 조절능력과 예상능력 이외에 다른 변인들도 주거이동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Watson(1980)은 정부의 주거지 폐쇄정책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흑인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변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이 자녀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높은 수준의 자기 이미지와 생활만족도 그리고 낮은 수준의 동요감을 나타냈으며, 경제적 상태와 정신건강상태 및 신체적인 자기유지능력 역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Wells와 그의 동료(1981)는 노인을 위한 주거단지에서 거주하는 노인들 중 같은 지역내에 있는 다른 주거지로 이동했거나 좀 더 확대된 보호를 요구하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이동 전후의 상호개인적인 관계망과 주거이동의 성공적인 조절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설 외부에 있는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는 주거이동 후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주거이동을 하기 전에 살았던 시설에서 그 곳 직원들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던 노인들이 비록 이동 후 그들과의 관계가 이미 붕괴되었을지라도 이동 후의 생활에도 더 잘 적응했다. 이러한 결과는 Watson(1980)이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있어서 친척 및 친구와의 관계가 주거이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밖에 Lareau(1982)는 일반적인 주거조절이론, 주거이동이론, 스트레스조절이론의 3가지 이론을 통합하여 노인들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적절한 변인들과 가설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노인들과 주거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변인으로 가족관계, 시설직원과의 관계, 취미활동, 종교참여, 주거규범과의 일치정도 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후 Baily(1987)는 확대된 보호시설(extended care facility)로 이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이동에 따른 만족감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동에 따른 만족감은 이동 시기에 좋은 건강상태, 새로운 생활환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결정,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예상능력, 이전의 생활환경과 이동한 시설과의 유사성, 그리고 현재의 배우자의 유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살펴보면 노인들이 주거이동 후에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이동을 전후한 개인적인 상황과 건강상태, 친밀한 가족 및 친구

관계 등에 의해 최소화 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만족도가 반드시 주택의 객관적인 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거지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의 방향은 다양하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거이동을 한 후에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오늘날의 노인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가지고 은퇴 이전부터 그들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한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자들의 관심은 은퇴 후 그들이 주거이동을 결정하게 되는 원인 및 과정을 밝히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거주형태 및 주거환경이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역시 시작 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동의 과정부터 이동 후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포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미래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이동은 노인들에게 충격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사건이라는 관점은 주거이동의 긍정적인 차원에 대한 연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거이동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노인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와같은 주거이동의 긍정적인 차원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의 주거이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생활 계획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이동을 하지 않고 한 주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 생활은 어떠한가? 특히 이동에 제약을 받거나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무엇인가?

세째, 주거이동을 실제로 원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이동을 하지 않고 그들의 노화과정에 따른 능력변화에 맞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를 변화시키고,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집단별로 이들의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누가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시 프로그램의 개발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박인숙(1989). 도시가구의 주거이동유형이 가정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27-143.
- 2) 김미희(1983). 주거이동 지향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3), 103-114.
- 3) 김정호(1987). 도시가구의 주거이동과 정책적 시사. *주택* 48, 4-9.
- 4) 윤종주(1979). 도시지역의 주거이동에 관한연구-서울시 동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여대논집* 8, 125-142.
- 5) 이경희(1984). 도시가구의 주거이동행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51-164.
- 6) 이동실태(1993). 인구주택총조사보고 제 8 편 고령자. 통계청.
- 7) 황병찬·박헌주(1987). 임차가구의 생애단계별 주거형태 의식 및 선호의 분석연구. *주택* 43, 30-44.
- 8) Alden Spear, Jr. and Judith W. Meyer(1989). Types of elderly residential mobility and their determinan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3(3), S74-81.
- 9) Anne Bailey(1987). Satisfaction with housing relocation as expressed by elderly persons. *Housing and Society* 14(2), 161-166.
- 10) Boureston N. and Pastalon L.(1981). The effects of relocation on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1(1), 4-7.
- 11) Brand, F.N. and R.T. Smith(1974). Life adjust-



- ment and reloc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29(3), 336-340.
- 12) Eugene Litwak and Charles F. Longino(1987). Migration Patterns among the elderly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27(3), 266-272.
- 13) James E. Birren and K. Warner Schaie(1985).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14) Kenneth F. Ferraro(1982). The health consequences of relocation among the aged in the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38(1), 90-96.
- 15) Lee Cuba(1991). Models of migration decision making reexamined : the destination search of older migrants to cape cod. *The Gerontologist* 31(2), 204-209.
- 16) Leslie, S. Lareau(1982). Relocation of the elderly : a social context for stress. *Housing and Society* 9(1), 3-11.
- 17) Lilian Wells and Grant Macdonald(1981). Interpersonal networks and post-relocation adjustment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Gerontologist* 21(2); 177-183.
- 18) Richard Schulz and Gail Brenner(1977). Relocation of the aged : a review and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32(3), 323-333.
- 19) Robert H. Binststock and Ethel Shanas(1985).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 Vand Nostrand Reinhold Company.
- 20) Rudolf H. Moos and Sonne Lemke(1985). Specialized living environments for older people. In James E. Birren, K. Warner Schaie(1985).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21) William H. Hass and William J. Serow(1993). Amenity retirement migration Process : a model and preliminary evidence. *The Gerontologist* 33(2), 212-220.
- 22) Wilbur H. Watson(1980). *Stress and old age*. New Brunswick and London : Transaction Book.
- 23) Wiseman R.F.(1980) Why older people move : Theoretical issues. *Research an Aging* 2, 141-154.
- 24) Victor Regnier and Jon Pynoos(1987). *Housing the aged*. New York, Amsterdam and London : Elsevier.